

李退溪의 詩歌문학**

- 주로 時調와 歌辭를 中心으로 -

徐 元 燮*

• 目 次 •

I. 序 言	1. 琴譜歌
II. 時 調	2. 勸義指路辭
1. 陶山十二曲	IV. 結 言
III. 歌 辭	

I. 序 言

퇴계는 조선조 오백년에 있어 첫째가는 巨儒이다.

그는 주자학을 집대성하여 다른 사람의 추종을 불허하기에 東方夫子라는 말을 듣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연구자가 퇴계를 哲學者型的 도학자로 규정하고 그에 관한 연구 또한 철학적인 면에서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昨今年의 퇴계학 연구의 실정이다.

퇴계는 詩人·文學者型的 도학자라고도 할 수 있다. 그의 주옥같은 漢詩와 우리 文字(한글)로 창작된 시조와 가사가 이를 말해 주고 있다. 하기에 철학적 사상적인 학문의 연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시가문학의 연구도 병행되어야만 퇴계학의 진면목을 살필 수 있다고 본다.

당시 양반사회에서는 한자로 쓴 글을 眞書라 하고 우리 문자로 쓴 글

* 전 경북대 국문과 교수

** 경북대 퇴계연구소, 『韓國의 哲學』 제6호(1977) 게재논문

을 諺文이라 하여 천시하였기 때문에 자연 한시보다는 우리 시가를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었다.

조선조 중엽을 대표하는 한문 4대가의 한 사람인 象村 申欽은 우리 문자로 30수의 좋은 시조를 창작한 바 있으나 시조의 우수성과 특이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만 한글 시가는 한시를 짓는 餘技로써 창작한다고 하였다.

그의 放翁詩餘序에 보면 함심한 바가 있으면 詩章을 짓고 그래도 餘繼가 있으면 방언으로 읊어 諺文으로 기록한다고 하였다.

有所會心 輒形詩章 而有餘繼以方言 而腔之而記之諺¹⁾

이는 우리 시가에 대한 象村의 견해만이 아니고 당시 儒者들의 공통적인 견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퇴계는 당시의 일반 유학자들의 견해와는 달리 우리 시가에도 깊은 이해와 일가견을 가지고 있었으니, 陶山 十二曲跋과 漁父歌跋에서 언급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陶山十二曲跋에서 性情에 느끼는 바가 있으면 매양 시로 불렀다. 그러나 이제의 시는 옛 시와는 달라 읊을 수는 있으나 노래하지는 못한다. 꼭 노래하고자 하면 시속의 말(國語)로써 엮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 나라의 風俗과 音節이 그렇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凡有感於性情者 每發於詩 然今之詩 異於古之詩 可詠而不可歌也 如欲歌之 必綴以俚俗之語 蓋國俗音節 所不得不然也²⁾

고 하여 한시는 읊을 수 있으나 노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 노래하고자 하면 우리 문자로 창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참으로 이는唱과 우리 문자로 창작할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라 하겠다. 하기에 퇴계는 시조로는 陶山十二曲을 지었고, 가사로는 琴譜歌·勸義指路辭·相杵

1) 金天澤, 『珍本靑丘永言』, 朝鮮珍書刊行會, 1948, p.37.

2) 『退溪先生文集』, 卷之四十三, 二十三張.

歌·樂貧歌·孝友歌 등을 지었다.

본고에서는 陶山十二曲과 琴譜歌 및 勸義指路辭만을 살피기로 하고, 또 이들 작품에 퇴계의 사상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II. 時 調

1. 陶山十二曲³⁾

1) 創作年代

陶山十二曲跋에 의하면 陶山十二曲의 創作動機·創作年代·創作地·作者·作者의 詩歌觀 등에 대해서 소상히 언급되어 있다.

그런데 跋에 명기된 창작연대에 대해서 異論을 제기하고자 한다.

跋에 嘉靖四十四年 歲乙丑暮春既望 山老書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조선조 明宗 20年(1565 A.D.) 3月 16日로 退溪 65歲 때에 해당된다.

跋에 보면

欲使兒輩 朝夕習而歌之 憑几而聽之 亦令兒輩 自歌而自舞蹈之 庶幾可以 蕩篠鄙吝 感發融通 而歌者與聽者 不能無交有益焉… 姑寫一件 臚之篋笥 時取玩以自省 又以待他日 覽者之去取云爾⁵⁾

라는 기록이 있는데, 퇴계는 陶山十二曲을 창작하여 아이들로 하여금 아침 저녁으로 익혀 부르게 하고 책상에 기대어 들으며, 또 아이들 스스로 노래하고 춤추고 뛰게 하고자 함이다. 또 한 部를 筆寫하여 상자에 감추어 두었다가 때때로 취하여 스스로 살피고, 또 다른 날 보는 이

3) 徐元燮, 退溪의 陶山十二曲 研究, 退溪學研究 2號, 1974.

4) 『退溪先生文集』, 卷之四十三, 二十四張.

5) 『退溪先生文集』, 卷之四十三, 二十四張.

의 버리고 취함을 기다린다고 함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嘉靖四十四年은 跋을 쓴 연대이지 결코 陶山十二曲을 창작한 연대는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고 한다면 陶山十二曲의 창작연대는 跋을 쓴 嘉靖44년 3월16일 이전에 분명하다.

後六曲 其一에 『天雲臺 도라드러 玩樂齋 蕭酒흔디』라고 하여 天雲臺와 玩樂齋가 보이는데, 年譜에 의하면 天雲臺와 玩樂齋를 지은 것은 퇴계 60세 때인 明宗 15年(1560 A.D.) 11월의 일이다.

하기에 陶山十二曲은 퇴계 60세 때인 明宗 15년 11월에서 跋을 쓴 明宗 20년 3월 16일 사이에 창작한 것이 분명하다.

그는 60세 때 陶山書堂을 짓고는 그 다음 해인 61세 때 서당을 지은 자세한 경위와 그 곳의 빼어난 형세를 18絶·26絶·4絶 시로 읊었으나, 한시는 읊을 수 있으나 노래하기에는 마음에 차지 아니함이 있어 18絶 등의 시를 지은 연후에 우리 문자로 노래할 수 있는 陶山十二曲을 창작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陶山十二曲의 창작연대는 퇴계의 61세 때인 明宗 16年(1561 A.D.)이라고 할 수 있다.

2) 內容(主題)

陶山十二曲의 주제는 言志와 言學으로 나눌 수 있다. 즉 前六曲은 때를 만나고 사물에 접하여 일어나는 감흥을 읊었고, 後六曲은 學問修德에 임하는 심지를 읊었는데, 12수의 시조에 담겨 있는 주제를 다시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 1) 江湖閑情 前六曲 중의 1· 2· 5· 6 曲
- 2) 教誨警戒 前六曲 중의 3 曲
- 3) 戀主忠君 前六曲 중의 4 曲
- 4) 學問修德 後六曲 전부

첫째, 江湖閑情의 시조를 보면 퇴계는 哲理만을 궁구하는 일반 도학

자와는 달리 도를 체득 실천하는데 힘쓰는 한편 자연을 벗하고 사랑하는 생활로 일관하였다. 퇴계가 자연에 몰입한 생활을 어느 정도 했는가 하는 것을 陶山記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퇴계는 자연을 玩賞하는 경지를 넘어서 자연에 沒入 沈潛하는 상태에까지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연에 몰입한 그의 일상생활은 바로 江湖閑情의 시조들로 표현되고 있다.

둘째, 教誨警戒의 시조를 보면 퇴계는 정치가로서 보다 학자로서 더 유명하고, 또 그를 東方夫子라고 일컫는 所而然도 그의 학문성취가 다른 사람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이다. 그는 관직에서 물러나 후진들을 教誨하는 한편 인성의 교화와 禮俗을 고루는데 힘썼으니, 그의 이러한 생활태도와 사상은 바로 教誨警戒의 시조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戀主忠君의 시조를 보면 퇴계집에는 미인이란 용어를 사용한 戀主詩는 별로 없고, 다만 恩君·聖主洪恩·恩典·君恩·聖恩·國恩·恩波 등의 용어를 사용한 시가 있을 뿐이다. 퇴계의 그 많은 한시 중에서 美人詩는 다만 2편 뿐인데, 그 중의 一篇은 매화를 미인이라 별명으로 읊었고, 나머지 一篇만이 군주를 미인이라 하여 읊고 있다.

하기에 퇴계가 미인이라 용어으로써 戀主詩를 지은 것은 이 시조와 더불어 오직 2편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美人詩가 오직 2편 뿐이라고 해서 그의 군주에 대한 충성심이 희박하다고 볼 수 없으니, 이 一首의 시조에서도 퇴계의 戀主忠君之情과 戀君思想이 잘 나타나 있다.

넷째, 學問修德의 시조를 보면 퇴계는 50세 때 寒棲庵을 지어 堂名을 靜翳이라 하고는 그 속에 파문혀 독서하는 한편 모여드는 학도에게 講學을 하는 나날을 보내었다.

이와 같이 學問研鑽과 後進講學에 몰두한 퇴계로서 학문수덕을 주제로 한 시조가 많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고, 또 그의 학문연찬의 태도와 사상은 바로 學問修德의 시조들에 잘 나타나 있다.

이 학문수덕의 시조는 그 내용이 高雅鎮重하여 東方夫子라는 말로 추앙받는 퇴계의 인품이 잘 풍기고 있는 작품이다.

Ⅲ. 歌 辭

1. 琴譜歌⁶⁾

퇴계의 음악(歌樂)관은 男女相悅의 變聲을 싫어하고 도덕을 存養하는 舜琴과 같은 正聲만을 찬양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음악관은 그가 쓴 陶山十二曲跋과 龔岩 李賢輔의 漁父歌跋 그리고 歌辭인 琴譜歌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琴譜歌는 聖代의 음악이던 正聲인 舜琴을 찬양하고, 거문고(玄琴)의 制度와 聲律을 도덕적인 견지에서 附會 설명하고, 차츰 세상이 亂世가 됨에 따라 正聲이 몰려가고 男女相悅의 變聲이 성행하는 것을 개탄한 것이다.

이제 琴譜歌를 그 문맥에 따라 5段으로 분단하여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第 1 段>

玉樓紗窓 花柳中の 白馬金鞭 少年들아
 ……<中略>……
 窮天 地理을 大綱이나 일으일라

第1段에서는 경박한 소년들이 화류장에서 기녀와 遊樂하며 거문고의 音律과 體法도 모르면서 오직 變聲만을 좋아하여 방탕하여 절제가 없는 것을 개탄하면서 正聲의 음률과 체법을 대강이나마 가르쳐 주겠다고 하고 있다.

6) 徐元燮, 退溪의 琴譜歌 研究, 退溪學研究 3號, 1975.

<第 2 段>

太平代 聖帝王이 堯舜밧긔 또잇느냐
 ……<中略>……
 上中下體 한法이 天地人 三才로다

제2단에서는 중국 歷代를 통관해 볼 때 태평성대의 제왕으로는 堯舜 뿐이라 하고, 또 舜帝는 蒼梧山 碧溪邊의 石上 梧桐을 베어 五絃琴을 만드니 그 舜琴은 上中下體 한 法이 天地人 三才를 모방했다고 하고 있다.

<第 3 段>

中虛 外實하야 陰陽을 配合하니
 ……<中略>……
 九萬里 雲霄의 기력의 발이로다

제3단에서는 거문고의 모양을 말하고 있다. 거문고는 中虛 外實하여 背部는 마치 天圓과 같이 둥글고, 腹部는 마치 地方과 같이 모났는데, 靑絲로 된 5絃 중의 3絃은 16棵 위에 있고, 다른 2絃은 雁足으로 버티어 놓았다고 말하고 있다.

<第 4 段>

蕭湘 斑竹枝로 줄줄이 골나너니
 ……<中略>……
 步虛子 尋訪曲은 太平의 詩興이라

제4단에서는 거문고의 聲律을 말하고 있다. 거문고를 타면 絃마다 각각 독특한 소리가 나는데, 大絃은 마치 老龍의 울음소리와 같고, 小絃은 仙鶴의 소리와 같다. 또 五音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第 1音은 春聲이라 東風 百花節의 杜鵑의 소리와 같고, 第 2音은 夏聲이라 南山 松栢枝의 孔雀의 소리와 같고, 第 3音은 秋聲이라 西風 白帝城의 孤雁의 소

리와 같고, 第 4音은 冬聲이라 北水 長江의 여울 소리와 같고, 第 5音은 雄聲이라 春秋 戰國時의 地動 소리와 같은데, 이는 모두 正聲이기에 이와 같은 소리가 난다고 하고, 태평성세의 음악(正聲 卽 治世之音樂)을 玉指로 탈 때마다 攄마다 각각 다른 청아한 소리가 나고, 특히 步虛子 尋訪曲을 타면 태평의 시흥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다.

<第 5 段>

南薰殿 月明夜의 손조빛겨 안으시고
 ……<中略>……
 엇지타 大聖遺譜를 誤傳할줄 잇슬는가

제5단에서는 舜琴은 治世의 음악(正聲)이었는데 今世에 와서는 女妓의 음악으로 변하여 靑樓酒肆에서 오직 경박자들의 男女相悅의 變聲으로만 盛傳함을 보고 원래는 治世之音인 大舜의 遺譜를 잘못 전하는 것을 개탄하고 있다.

2. 勸義指路辭⁷⁾

<第 7 段>

이름음 츄진후의 가으로 가지마라
 ……<中略>……
 이中을 출혀잇셔 일마다 찰혀스라

제7단에서는 物慾과 衆慾에서 마음을 찾은 후는 방심하지 말고 오직 精一해서 中을 잡아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는 精一하고 執中하는 것이 학문의 대법이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精一執中한 이를 보면 堯舜·孔孟·禹湯·文武·周敦頤·程顥·程頤·張載·朱熹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執中한 이들이기에 大聖 大賢이라 尊崇되고 있으니, 사

7) 徐元燮, 退溪의 勸義指路辭 研究, 退溪學研究 4號, 1976.

람들은 모름지기 大聖 大賢을 본받아 精一執中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第 8 段>

百事를 생각하면 輕重이 다이시며
 ……<中略>……
 이마음 일흔후에 禽獸의 거시로다

제8단에서는 百事에는 경중이 있고 만물에는 장단이 있듯이 인의로
 衡을 삼고 禮智로 錘를 삼아 一錢 一兩을 잘 판별해서 실천하고, 또 학
 문을 정진하면 자연 堯舜에 갈 수 있다고 하고 있다. 8段的 내용을 보
 면 마치 太極圖說에 있는 오직 성인은 中正과 仁義로써 정하고, 靜을
 주로해서 人極을 세웠다. 고로 성인은 천지와 더불어 그 德을 합하고
 日月과 그 明을 합하고 四時와 그 질서를 합하고 鬼神과 그 길흉을 합
 하니 군자는 이를 닦아서吉하게 된다. 고로 천의 도를 세워 음과 양이
 라 하고 地와 道를 세워 柔와 剛이라 하고 人의 도를 세워 仁과 義라고
 한다고 한 설을 부연하고 있는 듯하다.

聖人定之以中正仁義 而主靜立人極焉 故聖人與天地合其德 日月合其明 四
 時合其序 鬼神合其吉凶 君子修之吉 小人悖之凶 故曰 立天之道曰陰與陽
 立地之道曰柔與剛 立人之道曰仁與義⁸⁾

<第 9 段>

처음의 이걸들제 네게 해야 두건마는
 ……<中略>……
 數仞牆 도라들어 杏壇이 올오리라

제9단에서는 赤子의 마음은 人慾에 흐려지지 않은 양심이지만 보통
 인심은 욕심에 눈을 뜬 것이다.

8) 『退溪先生文集』, 卷之七, 太極圖說, 十~十一張.

하기에 한 번 찾은 赤心을 잘 간직해서 物慾에 눈뜨지 말고 聖學에 힘쓸 것이니 너무 달리지도 또 쉬지도 말고 조심해서 德과 義에 의지해서 정진하면 程顥·程頤·朱子·曾點을 거쳐 드디어 孔門에 도달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第 10 段>

나도 첫길이라 仔細히 모로면서
 ……<中略>……
 가다가 알아만나 다시무려 니거스라

1단을 序라 하면 제10단은 結이라 할 수 있다.

聖賢의 학문에 뜻을 두고 精一執中이라고 하고서도 結에 와서 퇴계는 겸허함을 나타내어 자기도 초학자로 남을 가르친다는 것이 외람하다고 하면서 좋은 스승을 만나 물어 가면서 정진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IV. 結 言

이상에서 논술한 바를 요약하여 결론을 삼고자 한다.

1. 陶山十二曲의 창작연대는 陶山十二曲跋과 시조에 나타난 天雲臺와 玩樂齋의 지은 시기 등을 살펴본 결과 퇴계의 61세 때인 明宗 16年 (1561 A.D.)의 작이라 추단해 보았다.

2. 陶山十二曲의 주제는 言志와 言學으로 대별할 수 있지만 세분하면 江湖閑情·教誨警戒·戀主忠君·學問修德 등으로 나눌 수 있다.

陶山十二曲 중에서 江湖閑情의 시조는 前六曲 중의 1·2·5·6 곡이 해당되고, 教誨警戒의 시조는 3곡이, 戀主忠君의 시조는 4곡이, 學問修德의 시조는 後六曲 전부가 이에 해당된다.

3. 琴譜歌는 聖代의 음악이던 正聲인 舜琴을 찬양하고, 또 거문고의 制度和 聲律을 도덕적인 견지에서 附會說明하고 후세에 와서 亂世가 됨

에 따라 正聲이 물러가고 男女相悅의 變聲이 성행하는 것을 개탄한 것이라는 것과 전문을 5段으로 분단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다.

4. 勸義指路辭는 인간이 仁義와 五倫을 행하지 않고 暗黑世界만을 좋아하여 날로 혼탁해지는 世俗을 근심하여 후학에게 교훈하기 위하여 창작한 것이라는 것과 전문을 10段으로 분단하여 내용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이들 작품에 담겨 있는 퇴계의 詩歌觀·音樂觀 등으로 볼 때 그는 우리 詩歌에 대한 올바른 견해와 일가견을 가지고 있어 序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퇴계는 詩人·文學者型的 道學者라는 규정에 손색이 없는 인물이라고 본다.